

보도시점 2026. 6. 5.(금) 15:00

배포 2026. 6. 5.(금) 13:00

# 농식품부,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상황 점검회의 개최

- 농식품부·농진청·지방정부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한 예찰·방제 대책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5일 오후 1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한 현장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020년 최대로 발생(394ha, 744농가)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 노력으로 발생 농가수와 발생 면적이 감소하여 지난 해에는 역대 최저 수준(55ha, 135농가)을 기록하였다.

\* 과수화상병: 우리나라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함. 감염됐을 경우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임.

\*\* 발생현황(면적ha/농가수) : ('15) 43/43 → ('19) 132/188 → ('20) 394/744 → ('21) 289/618 → ('22) 108/245 → ('23) 112/234 → ('24) 87/162 → ('25) 55/135 → ('26) 32/65(6.3.기준)

\*\*\* ① (사전예찰) 사전예방 중점기간('25.11.~'26.4.) 운영을 통해 궤양 등 주요 전염원을 제거하고 정기예찰('26.5.~10.)을 실시하여 생육기 정밀예찰 및 신속진단 추진  
② (자가예찰) 5~7월 매주 수요일을 '과수화상병 예찰의 날'로 지정하고 자가예찰 알림(푸시톡) 발송, 예방수칙 홍보 및 미준수 시 손실보상금 감액 등 제도 안내 실시

올해 6월 3일 기준 과수화상병은 현재 전국 65개 농가에 31.5ha 발생하였으며, 세종시, 충북 보은, 충남 공주, 경기 고양시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발생 면적은 11.6ha 늘어 158.2% 수준이며, 과수화상병 발생이 가장 심했던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39% 수준이다.

현재 과수화상병 위기관리 단계는 신규 발생지역이 확인됨에 따라 '경계 단계로 격상하여 운영 중이다. 과수화상병 발생과 확산 차단에 대응하고자 농촌진흥청에서는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발생 현황 모니터링 및 예찰·방제 추진상황 점검, 역학조사 결과 공유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도 자체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예찰·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 과수화상병 위기 상황 단계: 관심(평시) → 주의(기존 발생 지역에서 발생) → 경계(기존 발생 지역에서 다발생, 신규 시도 발생) → 심각(국가 재난 수준 확산)

농식품부도 농촌진흥청이 운영 중인 과수화상병 상황실과 별도로 상황 대책반을 구성하여 방제 추진 상황과 사과·배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농진청 대책상황실과 함께 각 지역별 예찰·방제 추진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특히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한 신고와 정밀 진단, 긴급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회의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과수화상병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미발생 지역을 포함하여 전 지역에 대해 예찰과 방제를 한층 강화하고, 농업인 대상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확대하여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한 신고와 초동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 노력으로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감소한 만큼, 올해에도 예방 중심의 방제체계를 철저히 운영하여 발생 감소 추세를 이어가야 한다.”라며, “정부도 현장 방제와 함께 국산 방제 약제 개발\*, 제도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과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국내 발생 과수화상병균만을 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박테리오파지 기반 농약 연구를 추진 중이며, 2027년부터는 생육기 방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를 추진 중임

한편, 올해는 전년 대비 봄철 저온피해가 감소하여 사과 생육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며, 6월 3일 기준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31.5ha)은 평년 사과 재배면적(약 3만3천ha)의 0.09% 미만 수준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과수화상병이 사과·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안정적인 과수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붙임. 과수화상병 개요

담당 부서	식량정책관실 식량산업과	책임자	과 장	허동웅 (044-201-1831)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044-201-1843)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경영과	책임자	과 장	조민경 (044-201-2251)
		담당자	사무관	조강흠 (044-201-2260)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책임자	과 장	채의석 (063-238-1040)
		담당자	지도관	민대홍 (063-238-1048)



■ 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피해가 가장 큼

- '93년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으로 지정하고, 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모든 국가산 기주식물은 수입 금지

\* 금지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해충

□ 화상병균의 생장온도 및 감염·발병 시기

- (생장적온) 25~27℃
- (생장한계) 3-5℃, 37℃
- (화기감염) 12℃ 정도에서도 가능
- (발생시기) 주로 5~8월

□ 화상병균의 기주식물

- 장미과 39속 180여종이며, 주요 기주식물은 사과·배·모과나무, 돌배·콩배·팥배나무, 산사나무, 피라칸다, 나무딸기 등임

□ 전염원

- (1차 전염원) 병원균은 주로 줄기나 굵은 가지의 껍질 등 병환부에서 월동하며, 봄철 수액 이동에 따라 활성화·증식되어 삼출액의 형태로 나무 밖으로 유출되거나 나무 내에서 성장하며 1차 전염원으로 작용
- (2차 전염원) 1차 전염원이 곤충·빗물 등에 의해 암술대 표면에 전파되면, 벌 등 곤충에 의해 주변의 많은 꽃으로 반복 확산되고, 감염된 잎·가지·줄기·열매 등에서 형성된 삼출액은 빗물 등에 튀어 주변의 감수성 조직으로 전파

□ 주요 피해증상

- 꽃·열매·가지마름, 잎에 흑갈색 병반 발생, 시들고 적·흑갈색으로 변하거나 떨어지지 않는 마른 잎, 줄기마름, 껍질 삼출액의 마른 흔적 등임